

답 사

존경하는 홍일식 총장님, 오 건 장로님, 권태완 교수님, 박관희 회장님, 그리고 이승구 목사님을 비롯한 한일교회 교역자님들과 장로님, 과학기술 한림원 정길생 회장님을 비롯한 한림원 회원님,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한국식품과학회 원로회원님, 콩세계과학박물관 건립추진위원님, 한국텐마크협회 선배님들, 식품업계와 식품안전관리 관계자 여러분, 사랑하는 저의 형님과 누님과 가족들과 친척분들, 장충고등학교 동기생들과 고려대 농화학과 63동기들, 고려대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호공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인에게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임을 축하해야할지 위로해야할지 망설이시지만, 저는 사실 젊은 교수시절부터 선배교수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년퇴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제가 저분들처럼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정년을 맞을 수 있을까 - 건강으로나 인격적으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년을 맞으니 무척 기쁘고, 드디어 해 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10여년의 유학 기간 중 우리의 전통문화가 서양사회에 일본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고려인삼이 진센으로 표기되고, 두부가 토우후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었으나 그때가 바로 동양사회가 서양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던 기간이었으므로 우리의 것이 모두 일본의 것으로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천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귀국하면서 이 잃어버린 천년의 문화를 되찾는 일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우리집 아이들에게도 전수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의 첫째딸 정실이는 한국 미술사를 전공하고 미국에서 개화기 꽃추화가 구본웅의 작품세계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실이는 동양사학 전공으로 중국 한나라 시대의 고고학적 자료를 분석하여 그 시대의 계층별 식생활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후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한 동북아 콩 문화사를 다시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막내 한실이는 피아노 전공이지만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국악의 음색을 컴퓨터 음악으로 전환하는 C-sound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간호학을 가르치면서 한의학적 간호중재와 우리의 전통 섭생이론을 적용한 보완대체 간호학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졸업생들의 도움으로 만든 기념논문집은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실험실에서는 매년 100여통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실험실 30년의 역사를 정리하여 보내기 위해 영어로 된 Food Research Archives를 출판한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 이 책을 준비하면서 우리방에서 대학원 연구를 수행한 200여명의 졸업생들을 그들의 연구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는 최근들어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제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해 살고 있으면서도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상 이변과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으로 세계의 식량부족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지한 식량 수출국에서는 식량의 수출을 제한하는 식량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있어도 사올 식량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하여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젊은 학자들에게 이 분야의 연구를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여론과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호공회 회원들이 이 재단을 위해 비이사로서 첫 번째 기부자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년을 맞으면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시키시려고 그동안 때로는 혹독하게, 또 때로는 영광스럽게 저를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처럼, 바로의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앞으로 닥칠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여 애굽을 구하고 주변 국가 사람들까지 원조하여 그 시대에 에집트를 세계의 최강국으로 만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년을 맞으면서 새 일을 찾아 나서는 저에게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가호와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이철호